

‘脫통신·脫SI’로 한계 뛰어넘는다 AI 인프라·로봇 기술력 확보 분주

통신·IT, 사업구조 재편

통신3사, 단순 ‘망 사업자’ 넘어 차세대 캐시카우로 AIDC 낙점
LG CNS, 로봇 전환 사업 총력 기업 전체 흐름, 로봇 중심 재설계
삼성SDS,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사진은 A.X 4.0의 대규모 학습(Continual Pre-Training, CPT)을 진행한 SK텔레콤 자체 구축 슈퍼컴퓨터 ‘타이탄’
/SK텔레콤

통신·IT 업계 전반에서 데이터센터, 로봇, 인공지능(AI)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한 ‘탈(脫)통신·탈SI’ 흐름이 가속화되며 사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통신·IT 기업들이 본업의 한계를 넘어 AI 기반의 신사업으로 전공을 빠르게 교체하고 있다.

국내 통신 3사는 더 이상 단순한 ‘망 사업자’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5G 보급률이 정점에 도달하며 성장이 둔화된 데다, 최근 잇단 보안 사고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차세대 ‘캐시카우’로 낙점했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저장 공간을 빌려주는 방식이었다면, AIDC는 고성능 GPU와 초고속 네트워크를 갖추고 AI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지능형 허브’를 지향한다.

SK텔레콤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GPU 6만 장 규모의 대형 AIDC를 구축 중이며, KT 역시 삼성SDS 컨소시엄과 협력해 2030년까지 대규모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LG유플러스는 파주에 축구장 9개 크기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 단순 임대료를 넘어 GPU 자원을 빌려주는 ‘GPUaaS’로 B2B 수익 모

델을 다변화하며, 통신 기지국에 AI 연산을 결합하는 ‘AI-RAN’ 기술로 미래 6G 시대까지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LG CNS는 가상 세계의 혁신(DX·AX)을 넘어 현실 세계의 물리적 로봇을 제어하는 ‘로봇 전환(RX)’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 CNS의 강점은 단순한 로봇 판매가 아니라, 기업의 전체 업무흐름을 로봇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컨설팅 역량에 있다. 이를 위해 최근 ‘RX 이노베이션 랩’을 신설하고 고객 맞춤형 로봇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스킬드AI 등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산업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 설계 역량까지 확보해 로봇 상용화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폴스택 R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SDS는 국내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적 규모의 AI 인프라 사업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삼성SDS는 2조5000

억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산·학·연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SDS는 정부 주도의 2조원 규모 GPU 확충 사업에 참여해 국가 AI 백본 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탄 AI 전용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국내 최초 B 300 기반 GPUaaS(서비스형 GPU) 출시 역량을 보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성능 컴퓨팅(HPC) 자원이 필요한 국내 기업과 연구소에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며, 국내 AI 산업의 기반인 컴퓨팅 파워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통신망 공급이나 시스템 통합 방식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명확해졌다”며 “AI 인프라와 로봇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실질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KT, ‘고객 패턴 맞춤’ 멤버십 혜택 확대

고객 보답 프로그램·달달혜택 운영

KT는 고객 소비 패턴에 맞춘 ‘4월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달달혜택’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고객 보답 프로그램은 16일부터 베스킨라빈스 할인 또는 쇼핑라운지 할인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베스킨라빈스는 파인트 제품 기준 최대 5000원 할인, 쇼핑라운지는 생수·생활용품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으로 구성됐다.

달달혜택은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용자가 하나의 혜택을 선택하는 ‘달달초이스’에는 베이커리, 커피, 피자, 배달, 영화 등 주요 생활 소비 브



모델들이 KT멤버십 4월 혜택을 소개하는 모습.
/KT

랜드가 포함됐다. 일부 혜택은 이용 기간이 연장돼 운영된다.

중복 이용이 가능한 ‘달달스페셜’은 쇼핑, 여행, 라이프스타일 영역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대형마트, 테마파크, 온라인몰, 면세점 등 다양한 제휴처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달러·유로 그린본드 동시 발행

‘역 프리미엄’ 형성

네이버가 달러화와 유로화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며 글로벌 투자자 신뢰를 재확인했다.

네이버는 15일 달러화와 유로화로 구성된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달러화 채권은 5년 만기 5억 달러, 유로화 채권은 7년 만기 5억 유로 규모로 총 약 11억 달러 수준이다. 국내 민간기업이 달러화와 유로화 채권을 동시에 발행한 것은 2020년 이후 약 6년 만이며, 유로화 7년물 발행은 국내 민간 기업 최초 사례다.

이번 발행은 유럽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및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알라팝 인수 이후 유럽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해 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국내 기업의 유로화 자금 조달 범위를 중장기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실제 네이버는 총 437개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는 최종 발행 규모 대비 약 9.3배 수준이다.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발행금리는 달러화 5년물 4.375%, 유로화 7년물 3.750%로 확정됐다. 특히 신규 발행시 통상 요구되는 프리미엄이 아닌 ‘역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달러화 채권은 국내 민간기업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의 5년물 발행 스프레드를 기록했다.

/최빛나 기자

삼성SDS-KKR, 1.2조 규모 전환사채 발행

AI 인프라 투자·AX 사업 확대

삼성SDS는 글로벌 투자사 KKR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1조 2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IT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

서 추진됐다. 삼성SDS는 확보한 자금과 기존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투자와 AX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사업 거점 확보와 신사업 발굴, 인수합병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KKR는 향후 장기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뤼튼, 매출 15배 급증... 글로벌 확장 속도

창립 5년 만에 첫 재무성과 공개
지난해 매출 471억... 1432.9% ↑
플랫폼 고도화 등에 투자 부담 이어져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기업 뫼트테크놀로지스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창립 이후 처음 공개한 외부감사 재무제표에서 매출이 1년 만에 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뫼트의 지난해 매출은 471억1721만원으로 전년 30억7372만원 대비 1432.9% 증가했다.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증가와 함께 수익화 구조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창립 5년 만에 처음으로 재무 성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성장 궤적이 더욱 주목된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투자 부담이 이어진다. 지난해 영업비용은 1059억6936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배 증가했으며, 영업손실도 588억5215만원으

로 1.95배 확대됐다. 플랫폼 고도화와 인프라 투자, 이용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동시에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회사 측은 이를 ‘성장 과정’으로 설명한다. 뫼트는 IT 서비스 산업 특성상 초기에는 플랫폼 투자와 사용자 확보 비용이 선행되는 구조라며, 향후 수익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성장 배경으로는 빠른 사용자 확산이 꼽힌다. 뫼트는 한국어 기반 자연어 처리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앞세워 개인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까지 확장하는 흐름을 만든다. 블로그 글쓰기, 마케팅 문구 생성,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중심 기능이 다양한 산업군으로 퍼지면서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진다.

최근에는 사업 구조도 변화한다. 개인 생산성 도구 중심에서 벗어나 콘텐츠 제작, 고객 응대, 내부 업무 자동화 등

기업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B2B 영역으로 확장을 시도한다. 이는 단순 이용자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뫼트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다. 회사는 올해 AI 전환 사업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을 추진하며 수익원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확장이 주요 전략으로 거론된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오픈 AI,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 경쟁 강도가 높다. 후발주자인 뫼트 입장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서비스 완성도, 현지화 전략, 산업별 특화 서비스 등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세영 뫼트 대표는 “지난해 나타난 급성장 흐름이 올해도 이어진다”며 “수익 구조 다각화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AI 서비스 기업으로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 U+, 부산도시철도 와이파이 5G 전환

대중교통 통신 품질 개선

LG유플러스는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부산도시철도 열차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5G 기반으로 고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LTE 기반 와이파이 망을 5G로 전환하는 것으로, 3.5GHz 대역 5G 백홀을 적용해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접속 지연과 끊김 현상을 줄이고, 영상 시청 등 대용량 데이터 이용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도화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



3호선 객차 내에 5G 라우터가 설치된 모습.
/LG유플러스

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통신 품질 개선 정책과 맞물려 진행되는 사업이다. 수도권 도시철도에 이어 부산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향후 전국 단위 확산도 검토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